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민정¹ · 여정희²

¹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²동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Factors Influencing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Nurses

Min Jeong, Kim¹ · Jung Hee, Yeo²

¹*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²*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2호 2024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2, June. 2024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민정¹ · 여정희²

¹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²동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Factors Influencing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Nurses

Min Jeong, Kim¹ · Jung Hee, Yeo²

¹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²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rital value, family-of-origin health, and job satisfaction on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nurses.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315 unmarried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200 beds and tertiary hospitals both located in city B and province K.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independent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arital intention. **Results :** The marital intention rate of unmarried nurses was 70.2%. The stronger the instrumental-conservative marriage values ($OR = 1.15, p = .011$), the weaker the passive-exclusive marriage values ($OR = 0.58, p < .001$), the higher the health of the family-of-origin ($OR = 1.08, p < .001$) and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OR = 1.07, p < .001$), the more positive th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nurses. **Conclusion :** To improve the positiv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nur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amily-of-origin health and job satisfaction. Moreover,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conservative and instrumental values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rriage and family. Considering passive-exclusionary values, policy support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family and work are compatible.

Key words : Nurses, Marital status, Marriage, Family, Job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경제적 침체, 증가하는 노인 부양비, 국가의 존폐 위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년간 시행되었다[1].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2]. 이는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과 미혼 남녀의 결혼 지연 또는 결혼 기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특히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남성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다[4]. 이러한 현상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았던 2024년 전국규모의 성인남녀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5]. 따라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혼의향이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혼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의향이 높으면 결혼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결혼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6]. 한편 결혼의향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되므로 가치관, 관계적, 인구학적, 경제적 및 정책적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접근되었다[7]. 최근 결혼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효용, 개인 내적 차원과 관계적 측면에 의해 결혼의향이 변화됨을 보고하였다[1]. 즉 결혼의향은 타인 또는 가족, 사회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기능의 건강성[4,6] 뿐만 아니라 자아상태와 인생태도[8], 직무만족도[5]등의 개인 내적 측면과, 경제적 지원인 정부지원 정책, 부모의 지원[9,10]과도 상관있었다.

그 중 결혼가치관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태도나 인식을 포함하여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11], 이와 결혼의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도구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낮았다[4,12]. 또한 미혼여성의 결혼관 또는 성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다[13].

원가족 건강성(Family-of-origin health)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등 가족체계가 생애주기에 맞도록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선행연구에 의하면,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의향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기능을 잘하는 가족체계 속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며[6], 결혼의향이 긍정적이었다[4].

또한 직무만족도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하며,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5]. 직무만족도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직무만족도는 결혼의향과 상관이 없는 연구도 있었으나[9], 직장에 만족한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았으며[5], 직장 내에서 팀워크가 원활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었다[16].

지금까지 결혼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직장인 미혼 남녀와 직장인과 비직장인을 포함한 미혼 남녀이었으며[9,10,12,1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여성 직장인의 미혼율은 28.7%[18], 보육교사는 51.3%[19]임을 감안할 때, 간호사는 약 80%로[20,21] 타 직종에 비해 미혼율이 높았다. 따라서 미혼 간호사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 간호사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결혼율 저하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 근무하는 미혼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결혼의향, 원가족 건강성, 결혼가치관 및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원가족 건강성, 결혼가치관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K도에 소재한 상급병원, 2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미혼 간호사 315명을 편의의 모집하였다.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미혼 간호사이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기혼간호사, 사별 또는 이혼한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표본 수를 산정하였고, 선행연구[22]에 따라 양측검증 OR값 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했을 때 최소표본 수는 30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339부를 배부하였으며, 21부는 미회수, 3부는 불성실 응답으로 총 315부가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원가족 건강성 22문항, 결혼가치관 13문항, 직무만족도 29문항, 결혼의향 1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도구는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되었다.

1) 원가족 건강성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은 Yu 등[14]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KFSS-II)를 재구성한 Park와 Lee[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이며, 가족 탄력성 7문항, 상호존중과 수용 5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경제적 안정과 협력 3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최저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최고 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 범위는 22-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5-.91, Park와 Lee[23]의 연구에서는 .85,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7-.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가족탄력성 .94, 상호존중과 수용 .92, 질적 유대감 .84, 경제적 안정과 협력 .86,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82이었다.

2) 결혼가치관

본 연구에서 결혼가치관 척도는 Kim과 Cho[1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Seo와 Kang[2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4문항,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5문항,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4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등을 내용으로 하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의 내용은 ‘내 삶에서 결혼보다는 일과 자아개발이 중요하다’, ‘결혼 생활보다는 일과 자아개발이 더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최저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최고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4-20점,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5-25점,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4-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하위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79,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71,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72이었으며, Seo와 Kang[24] 연구에서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70,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79,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67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6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68,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81,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7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76이었다.

3)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15]이 개발한 도구(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를 Park[25]이 번역 및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 문항이며,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최저 1점 에서 '매우 그렇다'의 최고 5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29-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 Park[25]의 연구에서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은 결혼할 의향 여부를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긍정적, 없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IRB 승인(IRB No. 2-1040709-AB-N-01-202305-HR-026-08)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병원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한 1곳의 상급병원과 200명상 이상

의 종합병원 3곳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해당 병원 간호부를 통해 설문지와 개별봉투를 전달하였고, 이는 각 병동에 배부되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완료된 설문지는 봉인된 개별봉투에 담아 간호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각 병원의 간호부를 통해 개별 봉투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로 양측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의향 정도와 원가족 건강성, 결혼가치관, 직무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결혼의향에 따른 원가족건강성, 결혼가치관,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결혼의향의 영향요인 파악은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결혼의향 있다'를 1, '결혼의향 없다'를 0으로 코딩하여 binary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315명으로 평균 28.92±6.08세이며, 25~29세가 148명(4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들은 모두 여성(100%)이었다. 대상자 중 종교는 없는 경우가 250명(79.4%), 4년제 졸업 이상이 210명(66.7%)이었다. 대상자의 월 급여는 300만원 이상이 199명(63.2%)이었으며,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5)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r)	≤24	64(20.3)
	25~29	148(47.0)
	≥30	103(32.7)
		28.92±6.08
Gender	Female	315(100.0)
Religion	Yes	65(20.6)
	No	250(79.4)
Education level	College	105(33.3)
	≥Bachelor's degree	210(66.7)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KRW [†])	<300	116(36.8)
	≥300	199(63.2)
Working type	Shift work	281(89.2)
	Fixed work	34(10.8)
Total clinical career (yr)	<2	111(35.3)
	2~<5	82(26.0)
	≥5	122(38.7)
		4.90±5.50
Dating relationship	Yes	180(57.1)
	No	135(42.9)
Marriage intention	Yes	221(70.2)
	No	94(29.8)

[†] Korean Won

180명(57.1%),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281명(89.2%)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4.90±5.50년이었으며, 5년 이상이 122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의향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221명(70.2%)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결혼가치관, 원가족 건강성 및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결혼가치관은 5점 만점에 3.21±0.53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안정-낭만적 4.04±0.61점, 소극-배타적 3.33±0.52점, 보수-도구적 2.99±0.89점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은 5점 만점에 3.74±0.76점이었 다. 하위영역은 상호존중과 수용이 3.90±0.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안정과 협력 3.77

±0.82점, 가족탄력성 3.69±0.82점,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57±0.86점, 질적 유대감 3.36±0.8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4±0.6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검정결과, 결혼의향은 연령($t = -6.11, p < .001$), 이성교제 유무($\chi^2 = 24.06, p < .001$), 총 임상경력($t = -4.59,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의향은 연령이 낮은 경우, 이성이 있는 경우, 총 임상경력이 낮은 경우 긍정적이었다(Table 3).

Table 2. Degrees of Marriage Value, Family-of-Origin health and Job Satisfaction (N= 315)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Item Mean±SD
Marriage value	13-65	22	65	41.78±6.87	3.21±0.53
Safety-romance	4-20	8	20	16.14±2.46	4.04±0.61
Passive-exclusive	4-20	4	20	13.31±21.02	3.33±0.52
Conservative-instrumental	5-25	5	25	14.95±4.43	2.99±0.89
Family-of-origin health	22-110	22	110	82.28±16.79	3.74±0.76
Family elasticity	7-35	9	35	25.86±5.71	3.69±0.82
Mutual respect and acceptance	5-25	9	25	19.51±3.87	3.90±0.77
Emotional connection	4-20	4	20	13.45±3.58	3.36±0.89
Economic stability and cooperation	3-15	4	15	11.31±2.47	3.77±0.82
Family cul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3-15	3	15	11.70±2.57	3.57±0.86
Job satisfaction	29-145	48	142	88.08±17.80	3.04±0.61

Table 3. Differences in Marriage Int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Variables (N= 315)

Variables	Categories	Marriage intention		χ^2 or t	p
		Yes(n=221) n(%) or Mean±SD	No(n=94) n(%) or Mean±SD		
Age (yr)		27.28±3.72	32.79±8.41	-6.11	<.001
Religion	Yes	47(21.3)	18(19.1)	0.18	.671
	No	174(78.7)	76(80.9)		
Education level	College	75(33.9)	30(31.9)	0.12	.728
	≥Bachelor's degree	146(66.1)	64(68.1)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KRW [†])	<300	86(38.9)	30(31.9)	1.39	.239
	≥300	135(61.1)	64(68.1)		
Working type	Shift work	201(91.0)	80(85.1)	2.34	.126
	Fixed work	20(9.0)	14(14.9)		
Total clinical career (yr)		3.75(3.12)	7.59±7.85	-4.59	<.001
Dating relationship	Yes	146(66.1)	34(36.2)	24.06	<.001
	No	75(33.9)	60(63.8)		
Marriage value	Safety-romance	4.17±0.52	3.69±0.67	6.12	<.001
	Passive-exclusive	2.82±0.71	2.30±0.67	-6.04	<.001
	Conservative-instrumental	3.25±0.82	2.37±0.71	9.01	<.001
Family-of-origin health		3.99±0.58	3.13±0.78	9.64	<.001
Job satisfaction		3.25±0.55	2.52±0.40	12.93	<.001

[†] Korean Won

연구변수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검정결과, 결혼의향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t=6.12$, $p<.001$),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t=-6.04$, $p<.001$), 보수-도구

적 결혼가치관($t=9.01$, $p<.001$)과 원가족 건강성($t=9.64$, $p<.001$), 직무만족도($t=12.9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연령, 이성교제 유무, 총 임상경력, 원가족건강성, 결혼가치관, 직무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최종 회귀모형은 Nagelkerke's $R^2=0.76$ 으로 설명력은 76.0%이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91.7%이었고, Hosmer Lemeshow test를 활용한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p=.182$ 로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은 연령, 이성교제 유무, 원가족 건강성,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직무만족도이었다. 즉, 결혼의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고($OR=0.88$, 95% CI: $0.80\sim0.97$). 이성교제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이었다($OR=3.06$, 95% CI: $1.27\sim7.38$). 또한 결혼의향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부정적이었으며($OR=0.58$, 95% CI: $0.47\sim0.73$),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긍정적이었다($OR=1.15$, 95% CI: $1.03\sim1.29$). 결혼의향은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OR=1.08$, 95% CI: $1.04\sim1.12$),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OR=1.07$, 95% CI: $1.03\sim1.10$) 긍정적이었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미혼 간호사의 비율은 70.2%로, 2017년 여성가족 패널분석 결과[10]인 58.5%와 온라인 설문조사(100만 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6]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직장 여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7].

본 연구에서 미혼 간호사의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3.33점,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2.99점으로 나타나,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 결과인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3.29점,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2.84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비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도 결혼가치관의 점수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미혼 간호사는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이었고,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었다. 즉 미혼 간호사가 결혼을 필수로 여기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빠른 결혼을 원하는 인식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이었으며, 내 삶에서 결혼보다는 일과 자기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었다. 이는 직장인과 비직장인을 포함한 미혼

Table 4. Factors influencing Marriage Intention

(N=315)

Variable	B	SE	Wald	OR	95%CI	p
Age (yr)	-0.12	0.04	5.90	0.88	0.80~0.97	.015
Dating relationship(1=Yes, 0=No) [†]	1.11	0.44	6.21	3.06	1.27~7.38	.013
Total clinical career (yr)	-0.05	0.05	1.01	0.94	0.84~1.05	.315
Marriage value						
Safety-romance	0.18	0.10	2.95	1.20	0.97~1.47	.085
Passive-exclusive	-0.53	0.11	21.38	0.58	0.47~0.73	<.001
Conservative-instrumental	0.14	0.05	6.49	1.15	1.03~1.29	.011
Family-of-origin health	0.08	0.01	20.89	1.08	1.04~1.12	<.001
Job satisfaction	0.06	0.01	17.36	1.07	1.03~1.10	<.001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Reference=No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4,12]와 동일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과 결혼의향과의 정적 관련성은 전통적 결혼관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또는 결혼, 자녀, 보수적 성 역할관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미혼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3]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과 결혼의향과의 부적 관련성은 결혼보다 개인적 성취를 중시할수록 또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나타낼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었다는 선행연구[7]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혼의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미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보수-도구적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소극-배타적 가치관을 고려하여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지원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혼 간호사의 원가족 건강성은 5점 만점에 3.74점이었으며, 일반 직장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6]의 결과인 3.51~3.52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4,6]와 일치하였으며, 양카라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나타난 가족 내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때 자녀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결과와도 동일하였다[27]. 즉 미혼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어린시절 동안 가족 내에서 초기 사회화가 시작되며,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결혼생활을 예측하므로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4]. 따라서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족 건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형성 및 유지,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형성은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므로 이를 위한 중재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혼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4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21]

의 2.89~2.95점과 유사하였으나, 타 직종인 보육교사 3.81점[28], 임상병리사 3.62점[29]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5].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팀워크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결혼의향을 보인 연구[5,16,20]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조직의 적응을 위한 업무 시스템 구축과, 적절한 인적자원 배치 및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가치관, 원가족 건강성, 직무만족도가 미혼 간호사의 결혼의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 즉 미혼을 높은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결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결혼의향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고자 함이며, 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미혼 간호사가 결혼의향이 긍정적이라고 한 경우가 약 70%였으며, 그들의 결혼의향은 도구-보수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미혼 간호사의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미혼 간호사의 긍정적 결혼의향을 위해서는 원가족 건강성을 높이면서 도구-보수적 결혼가치관을 강화시키고, 직장에서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미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논의가 제한적이므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미혼 간호사의 여

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미혼 간호사 남성도 포함하여 결혼의향에 대한 남녀 간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4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의향은 개인적, 사회구조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영향요인이 관여하므로 향후 이들이 고려된 다수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Oh MJ, Tak HW. Meta-evaluation through categorization of budgetary programs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 diachronic approach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1st~3rd basic pla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22;33(3):189-215.
<https://doi.org/10.53865/KSPA.2022.11.33.3.189>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Copyright statistics Korea [Internet]. 2024 [cited 2024 February 28]. Available from: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3. Im BI, Seo HL.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family values and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1;41(2):123-140.
<https://doi.org/10.15709/hswr.2021.41.2.123>
4. Choi YJ, Moon JH, An JS.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th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20;31(4):663-679.
<https://doi.org/10.7856/kjcls.2020.31.4.663>
5. Yu HJ, Im DG, Lee JY. Marriage and childbirth perceptions among Korean young Gener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nd corporate responses to low fertility rates. *Korean Peninsula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2024.2.2. KPPIF 23-R07.
6. Won AR, Park JY. Impact of family strengths,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views on marriage on unmarried couples' marriage inten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6;24(1):145-166.
<https://doi.org/10.21479/kaft.2016.24.1.145>
7. Park SY, Lee JL.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s among never married young adults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22;27(1):107-137.
<https://doi.org/10.21321/jfr.27.1.107>
8. Han JS, Kim MR.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 and life position.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2020;10(2):1-20.
<https://doi.org/10.35476/taca.2020.10.2.1>
9. Hwang IJ.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rriage support policies on the intention of marriage of unmarried worker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021;25(1):15-34.
<https://doi.org/10.22626/jkfrma.2021.25.1.002>
10. Kim SJ. Factors influencing th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women with wage 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22;53(2):37-62.
<https://doi.org/10.16999/kasws.2022.53.2.37>
11. Kim JY, Cho HS. The effect of dating relationship, marriage perspectives, and marriage images on college students expected age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4;19(2):123-143.
12. Seo JY. Study on unmarried men and women's marriage willingness.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2018;(69):371-393.
<https://doi.org/10.15186/ikc.2018.8.31.371>
13. Im SY, Park JH.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4;18(3):177-193.

14. Yu YJ, Lee IS, Kim SK.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KFSS-Ⅱ).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13;31(4):113-129.
15. Slavitt DB, Stamps PL, Piedmont PL, Haase AM.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1978;27(2):114-20.
<https://doi.org/10.1097/00006199-197803000-00018>
16. Yu WH, Hara Y. Job characteristics, marital intentions, and partner-seeking actions: longitudinal evidence from Japan. *Demographic Research*. 2020; 43(52):1509-1544.
<https://doi.org/10.4054/DemRes.2020.43.52>
17. Kim EJ.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marriage value and gender role value on th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wo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9(4):1291-1306.
<https://doi.org/10.22143/HSS21.9.4.90>
18. Kim KD, Kim HY, Moon SH. A study on the effects of submissive loyalty on the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employees. *The Women's Studies*. 2017;95(4):73-108.
<https://doi.org/10.33949/tws.2017.95.4.003>
19. Kim SH. The effects of relationship stress, work-life balance, and job value on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024;6(1):71-84.
20. Lee JH. Effects of clinical nurse's communication and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21. p. 1-59.
21. Choi HJ, Song RY. Burnout and compassion competency to explain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or emergency room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22;15(3): 2671-8634.
<https://doi.org/10.34250/jkccn.2022.15.3.12>
22. Kang PR. A study on the outflow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 Honam reg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1;29(3):234-245.
<https://doi.org/10.11111/jkana.2023.29.3.234>
23. Park SJ, Lee IS. Influence of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intimacy on couples: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5;23(2):381-400.
<https://doi.org/10.21479/kaft.2015.23.2.381>
24. Seo SY, Kang I. A study of the effect of gender, age, and marriage images on the marriage value. *Journal of Future Society*. 2019;10(1):65-81.
<https://doi.org/10.22987/jifso.2019.10.1.65>
25. Park JH.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nurses in hospital setting [master's thesis]. Seoul: Ewha University; 2002. p. 1-73.
26. Jo SB, Son HI. Lack of money? attitude toward money?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and material values on the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024; 28(1):39-53.
27. Sönmez N, Aktaş SC.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marriage and marriage anxiety of single youth individuals. *Third Sector Social Economic Review*. 2023;58(2):1118-1136.
28. Jang MS, Yu YM.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22;31(1):49-64.
<https://doi.org/10.5934/kjhe.2022.31.1.49>
29. Kim JH, Yun JS.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2022;10(1):111-118.
<https://doi.org/10.22961/JHCLS.2022.10.1.111>